

패션 전달수단의 역사적 변천 연구

이 경 희

금오공과대학교 섬유패션공학전공 조교수

A Study about the Historic Changes of Fashion Delivery Methods

Kyung-Hee Lee

Assistant Prof., Dept. of Textile & Fashion Engineering,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2004. 6. 7. 접수; 6. 30. 채택)

Abstract

By delivery means of fashion information, fashion dolls appeared in 18th century. According to development of printing, delivery means of fashion information changed from fashion dolls to fashion plates. Fashion plates offer a colorful and in depth view of the stylish fashions of the past. First fashion plate was Hollar's print that was inserted to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 and that was published at England in 1643. First fashion plate in France could assume as 'winter deshabelle' that was inserted to 'Le Mercure Galant' in 1678. The widespread publication of fashion plates began in England and France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first true fashion magazine 'The Lady's Magazine' was published at London in 1770. And suddenly similar plates were being published all over Europe. Fashion plates reached their height of popularity in the mid-1800's. Modern age in Europe for fashion magazine's golden age, hundreds kinds of fashion magazines published in Europe. Copyright laws in Europe were not enforced, resulting in widespread piracy of fashion designs and plates. After 19th century, America and Europe used much Paris' imitation plate. 'The Lady's Magazine',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 'Les Cabinet des Modes',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The Lady's Monthly Museum' were the important fashion magazines in 18th century. 'The Lady's Pocket Magazine', 'La Mode', 'Le Follet', 'La Mode Illustree', 'The Queen' were the important fashion magazines in 19th century.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Gazette du bon ton' were the important fashion magazines in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fashion dolls(패션인형), fashion plates(패션도판), fashion magazines(패션잡지),
pochoire(포셔와르), fashion delivery methods(패션 전달수단)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Lee
Tel. +82-54-467-4374, Fax. +82-54-467-4477
E-mail: k.lee@knut.kumoh.ac.kr

※ 이 논문은 2003년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패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패션정보를 신속, 정확히 전달하고자하는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전달매체를 낳았다.

18세기 프랑스의 패션인형(Fashion Dolls)에서 시작된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은, 그후 판화를 매체로 한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s)의 발전을 가져왔다. 19세기에는 동판화(銅版畫)의 플레이트를 전통적수법으로 계승하였는데, 빨리는 1830년대에 늦어도 1880년대에는 석판화(石版畫)의 패션 플레이트가 보급된다.

한편, 1890년대가 되자, 대량생산방식의 사진제판 플레이트가 나타나 본격적인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이용되어졌다. 패션 플레이트는 시각적으로 복식유행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므로, 당시의 우수한 예술가들이 일러스트를 담당하였다.

패션잡지(Fashion Magazines)는 패션 플레이트로 불리우는 패션도판을 삽입한 페이지를 포함하는 정기간행물로, 소설과 같은 읽을 거리, 당시의 화제거리, 최신 유행과 일류점포의 소개기사가 게재되었다.

1770년, 영국에서 『The Lady's Magazine』이 간행되었고, 이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패션잡지가 출현되었다. 1770년부터 90년까지, 유럽에서는 15종류의 패션잡지가 탄생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혁명으로 간행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자 패션잡지는 융성기를 맞게 된다.

특히, 1830년대 이후에는 인쇄술의 비약적인 진보와 철도의 개설로 인해, 더욱 다양한 패션잡지가 속속, 창간되었다. 이러한 패션잡지가 전한 것은 주로 유행의 중심지인 파리의 화제였지만, 잡지안에 삽입된 패션 플레이트에 의해 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유행복식에 관한 지식을 입수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유럽의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의 패션인형, 패션 플레이트, 패션잡지의 등장과 변천의 모습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패션인형의 시대

패션 달(fashion doll)이란, 의복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션인형을 말하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 등장하였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파리 모드를 인체의 1/2이나, 1/3로 축소된 인형에게 입혀, 주변국가에 보냄으로써 최신 궁정유행을 전달했다. 「빅 앤드 리틀 판도라」(Big and Little Pandora)라고 불리는 이 인형은 <그림1>과 같은데, 영국의 런던과 독일의 제후걸로 보내어졌고, 남쪽으로는 콘스탄티노플로, 북쪽으로는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보내어졌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성에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었던 복식이 작은 밀납인형에 입혀져 보내어졌다. 당시의 패션인형은 현대의 패션 카탈로그와 마네킹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패션인형은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졌고, 유행의 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유행하는 직물로 만들어진 의상을 입은 정교한 것이었다. 당시, 3차원의 입체인형은 가장 정확한 패션정보의 전달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패션인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의 발명은 아니었고, 이미 14세기말에 영국의 리처드2세의 왕비 이사벨라가 프랑스의 유행을



〈그림1〉 18세기의 패션 달 「빅 판도라」. Fashion in History, p.189

따른 인형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6세기의 엘리자베스여왕이 프랑스왕에게 파리의 유행을 묻은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프랑스로부터 인형이 보내어졌다고도 알려졌다.

이처럼, 최신유행의 의상을 입은 패션인형은 처음에는, 왕후·귀족에게만 한정적으로 보내어졌으나, 서서히 중산층 시민계급에도 유통되게 되었다. 한 예로, 18세기 런던의 드레스 메이커가 파리로부터 최신 유행복을 입은 인형이 도착했음을 신문에 광고하고, 고객들이 그 인형을 보러 모였다고 한다²⁾.

III.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잡지의 등장

1.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잡지 등장의 배경

프랑스의 모드상인은 이국(異國)의 왕후귀족과 평민계급에게 밀납인형을 보내어, 유행하는 패션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는 마차의 시대이고, 파리와 같은 도회를 일보 벗어나면 진흙탕 거리인지라, 작은 진동에도 밀납인형은 파손되는 일이 많았다. 또 서민들에게까지 보내어지기 위해서는 대량의 인형이 필요했다. 이에 모드상인은 밀납인형을 대신할만한 견본은 없을까하고 고심하게 된다. 운반하기 좋고, 패션의 특색과 매력을 고객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견본,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쇄물이었다. 더욱이 당시의 프랑스는 유럽제일의 동판화 기술을 자랑하고 있던 18세기말이었으니, 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해서 오늘날 「패션잡지(Fashion Magazines)」라고 총칭하는 정기간행물이 탄생하게 된다.

패션의 정기간행물은 로코코취미 일변도로부터 근대적 복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 유럽 패션에 큰 변모를 촉진시켰다. 그러한 특색은 아름다운 수채동판화에 표현되어, 보름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이라는 빠른 사이클로 간행되었다. 환언하자면, 패션잡지는 그 출현시부터, 신문과 같은 속도로 최신유행을 쫓았던 것이다. 이렇게되자, 더 이상 밀납인형에 의존할 필요는 없게되었다.

한편, 패션 플레이트가 나타난 배경에는 산업혁

명과 그에 수반하는 시민사회의 성립도 있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자 세계의 해상권을 쥔 영국은 대량의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 자본의 투자처로써, 유리한 기업을 찾고 있었다. 새로운 생산기술이 발명되자, 대규모공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태세가 되었다. 그즈음 식민지 인도로부터 가지고 온 면직물은 영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수요가 증대해갔다. 인도로부터의 원료를 근거로 목면공업이 국내에서 발달하여, 방적(紡績), 직포(織布)의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기술이 개발되었다. 동력분야에서도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목면공업으로만 그치지않고, 기계의 원료인 철공업,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공업,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공업, 교통수단으로서의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개발로 전개되어갔다. 그 결과 자본을 축적했던 중산계급이 사회경제를 쥔 주체가 되었다. 동시에 농업노동자가 공업노동자가 되어 사람들의 도시집중이 일어나고, 공업도시, 상업도시가 생겨났다. 산업혁명은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독일, 아메리카로 파급되어갔다.

이 큰 변혁을 의생활면으로부터 보면, 산업혁명의 발단은 섬유산업으로부터였다. 옷의 소재가 되는 직물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알 수 있다. 풍요로운 의생활에의 동경이 근대산업을 낳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패션을 지지해온 것은 왕후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특권계급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는 중산계급, 특히, 시민계급으로 시야가 넓혀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섬유산업의 확립과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의 패션 플레이트를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³⁾.

2.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잡지의 등장

1) 코스튬 플레이트(Costume Plates)와 패션 플레이트

패션 플레이트가 발행된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패션 플레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그림2>와 같은 코스튬 플레이트(服裝圖版)가 있다.



〈그림2〉 코스튬 플레이트, 1819.
ファッション圖の歴史, p.83

코스튬 플레이트란, 어느 시대, 어느 지방의 복장을 충실히 기록한 도판이나, 역사적인 양식을 그린 그림이나 초상화를 말한다. 16세기의 지리상의 발견은 유럽이외의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16세기 후반, 세계각지의 복장을 그린 판화집의 간행이 활발했던 것도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이들 화집은 당시의 복장을 아는 자료로서 귀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후의 모드 판화집, 혹은 패션 플레이트의 선구라고도 할 수 있다. 1577년에 뉘른베르크에서 간행된 요스트 아망의 『주요국의 남녀의 복장』은 200개의 도판으로 이루어졌는데, 패션 플레이트의 선구적 존재이다⁴⁾.

이처럼 특권계급의 패션 발신원이었던 당시 귀족의 초상화와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나라의 코스튬 플레이트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유행할 패션정보를 전달하는 유력한 수단인 패션 플레이트의 역할을 했던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패션 플레이트가 돌연 출현한 것은 아니고, 코스튬 플레이트가 조금씩 변용하여, 점차 패션 플레이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V. 홀랜드(Vyvan Holland)는 복식판화(服飾版畫)의 시기를 크게 둘로 나뉘며, 코스튬 플레이트기와 패션 플레이트기라고 하였다. 홀랜드는 코스튬 플레이트란 「유행복이든, 국민복이든, 무대 의상이든, 그것을 그대로 하나의 복장기록으로 충

실히 기록해둔 것으로, 적어도 과거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하여 패션 플레이트란, 「어느 시기의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착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바른 형을 사람들에게 표시할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착장될 것이라는 예측으로서의 미래를 포함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구분했다⁵⁾.

즉, 패션 플레이트는 단순히 당시 복장의 충실한 기록이 아니고, 작가에 의해 어느 종류의 예견적 각색과 이미지가 가미되어 그려진 것으로, 어디까지나 수년래의 형이라고하는 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폭이 있는 전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2)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잡지의 등장

『Le Petit Courier des Dames(1821-1868)』, 『Le Follet(1829-1882)』, 『Le Moniteur de la Mode(1842-1913)』, 『La Mode Illustree(1860-1937)』 등과 같은 19세기의 유명한 패션잡지를 보면, 거기에는 매호 주간지에서는 통례 2매, 월간지에서는 4매 정도의 극히 미려한 수채동판화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패션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플레이트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패션 플레이트는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동판화로부터 석판화로, 포셔와르(pochoir)의 채색법으로, 혹은 사진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모드 사진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패션 플레이트의 크기는 2절, 4절, 8절 등인데, 흑색도판만으로 좌우 2페이지와 3페이지분량을 끼워넣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사례에서 볼 때, 패션 플레이트란 「의장(衣裝)과 모드의 전달매체로서 인쇄된, 고식도판(古式圖版)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패션 플레이트는 보통 패션잡지에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패션잡지와는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패션잡지의 시작은 루이14세 시대인 1672년 프랑스에서 간행된 『Le Mercure Galant』(1729년부터는 Mercure de France로 개제)인데, 이 책은 해외와 국내사정, 사교계뉴스, 전시회의 보고, 유행가, 궁정의상이라고하는 다각적인 내용이 다루어진 일종의 관보(官報)였다⁷⁾. 『Le Mercure Galant』에 처음 패션 플레이트가 삽입



〈그림3〉 르 크레르作 「겨울의 데자비에」,
1678. 아르·데코の世界, p.11

된 것은 <그림3>으로 1678년이다.

또 1778년에 시작되어 10년간, 파리에서는 <그림4>와 같은 독립된 본격적인 수채동판화의 예술적인 모드지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가 간행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프랑스에서의 패션 플레이트의 효시였을 뿐만 아니라, 유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제공한 최초의 것이었다.

패션 플레이트는 미래에의 예측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패션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려움은,



〈그림4〉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 ファッションの歴史, p.76

그 시대를 리드하는 창조적 플레이트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복제 플레이트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홀랜드의 서술에 의하면, 영국, 독일, 아메리카의 어느 한 시대의 패션 플레이트는 프랑스의 복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원판을 수입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았다.

또한, 패션 플레이트는 발생 당시는 상류사회의 전유물이었지만, 연대가 지남에 따라 일반시민간에도 보급되었다. 또한, 그 역할에 있어서도 본래의 패션정보의 전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름다움으로 실내장식용 액자로도 이용되었다.

한편, 영국에서의 패션 플레이트의 수집과 선구적인 연구로 알려진 V. 홀랜드는, 체코의 프라하 출신인 W. 호라(Wenzel Hollar, 1607-1677)야말로 영국의 패션 플레이트의 아버지라고 하였다⁸⁾.

<그림5>는 호라의 판화인데, 이것은 『Le Mercure Galant』보다도 30여년이나 이전이므로, 견해에 따라서는 패션 플레이트에 관한한 영국이 앞섰다고도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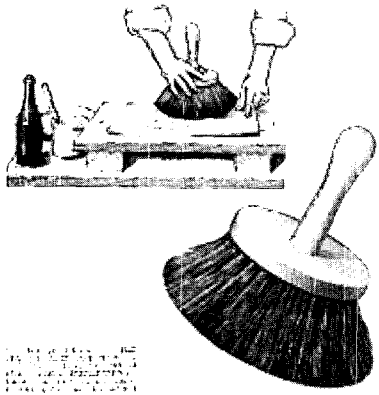
〈그림5〉 W. 호라作, 「四季」중 「冬」, 1643.
아르·데코の世界, p.12

3) 패션 플레이트에 사용된 포쇼와르(pochoir)의 기법

패션 플레이트의 매력의 하나가 색채감 풍부한 수채판화라는 점이다. 17세기 이후의 항해술의 진보는 기후풍토가 다른 각지의 동식물의 생태와 이(異)문화의 풍속을 기록한 박물도감의 간행을 가져왔다. 새, 물고기, 곤충, 포유류와 식물을 빼어난 도상으로, 아름답게 수채색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기술이 18세기 중기경부터 유럽에 간행된 패션 플레이트에서도 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패션 플레이트에 수채색을 칠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상세한 복식묘사가 생겨났다.

그러나 19세기말이 되자 수채색 패션지의 폐간이 이어졌다. 기술의 진보과정으로 1880년대에 명명된 사진제판에 의한 망판이 주류가 되고, 사진 중심의 기계인쇄인 패션지가 늘어나자, 수채색에 의한 플레이트는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1912년 6월에 복간된 『J.D.M.(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은 서문에서 잃어버린 멋쟁이정신을 추구하여감을 나타내고, 수제(手製)의 패션지가 끊어진 출판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나간 좋은 시대의 부활을 외치며 등장한 『J.D.M.』은 19세기의 형식을 답습한 것이기는 했지만, 오리지널리티 넘치는 도안에, 눈부신 수채색으로 예술성이 높은 묘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수채화풍에 미묘한 음영을 준 것, 평균적으로 두껍게 안료를 겹친 표현, 미니어



(그림6) 포쇼와르기법의 컬러링 공정, 1926. *아르·데코의 패션·북*, p.240

처를 연상시키는 극채색도 보인다. 드레스의 프린트 문양과 얼굴의 표현, 배경도 상세하다. <그림6>과 같은 이러한 채색기법을 포쇼와르(Pochoir)라고 불렀는데, 포쇼와르는 아르데코기를 중심으로, 그래픽 아트에 공헌하였다. 포쇼와르는 프랑스로 두꺼운 종이와 금속판을 도려내어 컬러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의 스텐실에 해당한다.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포쇼와르가 게임 카드와 벽지, 일반인쇄에까지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져 왔다⁹⁾.

IV. 18~20세기초의 패션플레이트와 패션잡지의 발전

V.홀랜드와 모어(D.L.Moore)는 미래를 예측한 패션 플레이트의 도래를 1770년에 런던에서 발행된 『The Lady's Magazine』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후 수많은 패션잡지가 발행되었다. 홀랜드의 저서에 의하면 1770년부터 1899년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258개의 패션잡지가 간행되었다. 1790년대에 프랑스는 5지, 영국 2지, 독일 12지, 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각 1지로 계22지가 간행되었다. 그후 181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1830년대에 36지, 1840년대에는 45지로 증가하고, 1872년에는 56지로 최고가 되나, 이후 감소한다.

간행국별로는 프랑스가 112지로 가장 많고, 독일 57지, 영국 41지, 이탈리아 9지, 오스트리아 8지이다. 숫적으로는 독일이 영국을 능가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계속 간행된 잡지수는 프랑스가 29지, 영국 19지, 독일 13지, 오스트리아 3지, 이탈리아 2지이다¹⁰⁾.

본장에서는 18~20세기초의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 잡지의 발전과정을 세기별로 나누어보고, 당시의 주요 패션잡지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18세기의 패션 플레이트의 특징과 주요 패션잡지

15세기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래, 서적의 출판은 착실히 신장하여, 17세기에는 이미

일간지와 각종 잡지가 탄생했다. 그러한 인쇄물 중에는 삽화로서의 도판이 일찍부터 등장했다.

18세기가 되자, 아름다운 도판의 서적이 다수 출판되게 된다. 동물과 식물의 박물도감(博物圖鑑), 세계각지의 풍경화와 풍속을 기록한 인물화, 그것에 해부도와 상상을 자극시키는 환상화 등은 도판 기술로서 이미 완성되어져갔다.

인쇄물의 도판은 판화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한 도판의 대부분은 금속판을 산으로 부식시켜 선을 파는 에칭(etching)과 조각도로 직접 금속면에 선을 파내는 인그레이빙(engraving)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것이나 판화에 잉크를 발라, 흠에 잉크를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닦고, 프레스로 잉크를 종이에 전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오탁판인데, 그외 볼록판도 이용되었다. 그리고 드라이포인트(drypoint), 메조틴트(mezzotint), 아쿠아틴트(aquatint)로 불리는 기법을 병용할 수도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평판인 석판의 기법도 이용된다. 각각은 표현의 밀도와 판의 내구성, 인쇄의 수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나누어 썼다. 그러나 그 표현 효과는 현재의 발달된 사진기술로도 능가할 수 없는 우수한 점이 있었다.

계급의 표시가 되는 복장을 제시하는 모드집은 유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시민들은 이미 왕후의 모드를 자신들의 패션으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정보원은 인형이 아니고, 패션 플레이트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 미디어가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즉, 모드와 패션을 전문으로하는 본격적인 정기간행물이 출현하고부터였다. 18세기의 모드지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여성, 즉 귀족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드지는 부르주아 여성의 것이 되고, 점차 일반여성의 것이 되어갔다¹¹⁾.

18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간행된 주요 패션 잡지를 발행년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Lady's Magazine(1770-1837)

<그림7>의 『The Lady's Magazine』은 패션 잡지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이 패션잡지는 런던에서 1770년에 창간되어, 1837년까지 간행되었는데, 매월 1회 발행되었다. 1회의 발행 페이지



<그림7> 『The Lady's Magazine』, 1826.
パリモードの200年 1, p.29

는 56페이지(사이즈는 205×125mm)였다. 내용으로는 판화로 된 패션 플레이트 1매, 악보, 자수의 패턴, 새의 박물도판, 풍경화 등이 들어있었다.

1804년 1월호의 내용을 보자. 우선 프랑스 잡지로부터 발췌한 패션과 꽃집의 뉴스, 소설 3편, 재담 5~6편에 이어서, 「파리의 패션」이란 타이틀이 붙어있는 플레이트가 등장한다.

잡지의 내용에는 파리잔느의 패션, 런던 패션의 해설이 있다. 그리고 황후폐하의 탄생일의 축하에 참여한 사람들의 치장이 극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귀부인들의 모습이 눈에 떠오를 듯하다. 다시 소설이 등장하고, 다음에 연재물인 새의 박물지(博物誌)가 있는데, 꽤 전문적인 것으로 보아, 당시의 교양의 하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가 11편 이어진다. 또한, 외국 뉴스의 페이지도 있다. 내용은 정치·외교가 많고, 파리로부터는 나폴레옹의 황제즉위가 뉴스가 되고 있다. 넬슨함대의 동향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은 진신, 전화, TV가 없는 시대의 귀중한 정보원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영국 국내의 뉴스도 있다. 각지의 화재라든가 사고의 보도가 눈을 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부터의 정보도 꽤 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해외 단체여행이 붐을 이루었다. 그 덕분이었는지, 여성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각지의 풍속에 관한 소개도 있다. 이러한 소개에는 그 지역의 풍경화가 더해져 흥미를 끈다.

당시, 음악은 상류계급 여성의 교양이었으므로, 매월 악보가 들어있다. 또한, 매월 권말에 탄생·사망통지와 함께 결혼통지가 크게 취급되고 있다¹²⁾.

2)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1778-1788)

수채색 동판화를 넣은 패션잡지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1785년이다. 유행은 계급의 존엄을 나타내는 복식으로부터, 화려하고 섹슈얼한 복식으로 변화해갔고, 이것은 도판에 잘 어울렸다. 정기간행물 형식에 의한 패션 플레이트가 세상에 나온 것은 프랑스가 빨랐다. 1728년에 나온 『정보수집실 및 삽화들어간 신정보』가 효시가 되지만, 널리 뿌리내린 면에서는 영국이 앞섰다. 1770년 창간된 『The Lady's Magazine』은 시민을 위한 패션지로 불리움에 걸맞게, 시대적인 잡지였다.

이것을 뒤쫓듯이 프랑스에서 간행된 것이 <그림 4>와 같은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인 것이다. 이 잡지는 파리의 판화출판사인 에스노(Esnauts)와 라피이(Rapilly)에 의해 1778년 발행되어 1787년까지 간행되었다¹³⁾.

이 책은 모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에서 입혀지고 있는 것의 최신정보와 그 상세하고 정확한 그림을 제공했다. 와토(Watteau), 상 토반(Saint-Aubin), 데레(Desrais), 르 클레르크(Le Clerc)의 손에 의한 판화는 채색에 공을 들였고, 높은 완성도는 그 이후의 간행물의 모범이 되었다.

이 잡지는 처음에는 포리오판(2절, 40×26Cm) 6매의 판화를 넣은 분책(分冊)형식으로 간행되고, 헤어 스타일을 주로 다루는 실용지였다. 그리고 제 7분책으로부터는 대중의 요망에 부응하여 여성의 전신상을 그리게 되고, 일종의 미인화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¹⁴⁾.

또한, 이 잡지는 상품가치로서는 아름다운 수채 판화였는데, 수채 판화는 코스트가 들지만 모드의 매력이 색채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요소이다. 판화의 무늬는 멀리 배경도 그려져 1장의 초상화로서도 통용되었다. 또 그려진 모드는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것은 사교계와 거리에서 본 부인들의 의상을 사생한 것과 로즈 베르탕(Rose

Bertan)을 비롯한 디자이너에게 지시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3) Les Cabinet des Modes(1785-89)

루이16세 시대는 부인복 분야가 전례없는 붐을 이뤄, 의장의 장식을 중심으로 부단히 모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변화의 가속화와 엘레강스의 사회적관심의 고양은 사상 최초로 정기간행의 모드잡지의 등장을 촉진시켜, 1770년부터 90년까지 15종류의 모드잡지가 탄생했다. 그중 1785년 11월에 간행된 것이 <그림8>의 『Les Cabinet des Modes』였다. 『Les Cabinet des Modes』는 최신 모드를 하루 빨리 채색판화로 도상화하고, 상세한 해설문을 첨부하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월 2책을 간행하는 반월간지였는데, 현대의 『Vogue』나 『Harper's Bazaar』와 같은 패션 전문지의 선구자 중의 하나였다¹⁵⁾.



(그림8) 『Les Cabinet des Modes』의 영국풍 로브, 1786. 파리·모드의200 年 1, p.13

편집인은 르 브랑 토사(Le Brun Tossa), J.A.브랑이었는데, 이들은 아직 젊은 인물들이었지만, 정밀한 패션 플레이트의 제작에 몰두하여, 하나하나 그려진 복장에 정보를 덧붙였다. 여기에서 기록성도 더하여지게 된다.

도판은 오늘의 눈으로 보면 다소 치졸한 면도 있지만, 드라이포인트로 파내어 과슈로 채색한 것이

다. 프랑스혁명이 발생하기까지 4권, 도판 388매를 간행했는데, 세상이 소란해지자 어쩔 수 없이 간행한지 5년만에 폐간을 맞았다. 그러나 『Les Cabinet des Modes』(1786년 부터는 『Magazin des Modes Nouvelles Francais et Anglaises』로 개제)는 금일적인 패션 매거진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구현했다. 그 증거는 혁명이 끝나고, 사회가 평온을 회복함에 따라, 같은 취향의 잡지가 유럽대륙에 속속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4)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1797-1839)

프랑스에서의 패션의 정기간행물 자체는 1728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일반의 인기를 얻은 것이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부인과 모드의 잡지)』였다. 세레크와 인쇄업자인 레망부인에 의해 공동출판된 이 잡지는, 1797년 3월에 『Journal des Dames』로 창간된다. 그리고 36호부터는 다시, <그림9>의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로 개제(改題)되어, 다음해인 1799년에 피에르 드 라 메장제르(Pierre de la Mesangere)를 편집책임자로 맞았다¹⁶⁾. 여기에서부터 삽화들어간 패션 잡지의 전



<그림9>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1809. 世界服飾史, p.106

성은 시작된다.

이 잡지는 매월 5가 붙는 날에 약 8페이지의 텍스트에 수 매의 수채동판화의 패션 플레이트를 넣어 간행되었다. 내용은 프랑스혁명 직후로부터 제

1공화정, 제정, 왕정복고라고 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해가는 복장과 사교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1803년부터는 『Costume Parisien』로 다시 개제되어, 1839년까지 계속된다¹⁷⁾. 창간부터 종간까지 이 잡지에 게재된 패션 플레이트의 총수는 3,725매에 이르러, 이후의 패션지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¹⁸⁾.

5) The Lady's Monthly Museum (1798-1832)

<그림10>의 『The Lady's Monthly Museum』은 1798년부터 1832년까지 런던에서 매월 1회 간행되었고, 1회의 발행 페이지는 82페이지(사이즈는 172×100m/m)였다. 그 안에 패션 플레이트 2매와 권두화(卷頭畵) 1매가 삽입되었는데, 권두화의 내용은 게재소설의 작자의 초상화, 또는 소설의 한장면을 그린 판화였다.



<그림10> 『The Lady's Monthly Museum』, 1799. ファッション プレートへのいざない, p.39

1799년 1월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세이 7편, 소설 9편, 독자로부터의 투서 4편, 시 13편, 서평 8편, 극평 8편, 수예기법, 벨슨제독의 모자장식의 도판 설명, 그리고 패션 플레이트에 그려진 복장의 해설등이다. 소설중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것이 2편, 독자에 의한 터어키어와 아라비아어 소설 3편의 번역의뢰가 있다. 또한, 당시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오리엔트에 대한 관심이 눈길을 끈다. 서평에서 취급된 내용은 여행, 음악, 박물학, 자연, 시문, 희곡, 소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법 등이 있다.

2월호도 내용은 거의 같다. 게재된 패션 플레이트는 <그림10>과 같다. 도판은 1799년 2월의 모닝 드레스(좌)와 정장 드레스(우)이다¹⁹⁾.

2. 19세기의 패션 플레이트의 특징과 주요 패션잡지

19세기 중기 이미 사진기술이 발명되어 초상사진의 유행도 보였지만, 그것이 패션분야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므로 도판은 변함없는 판화의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패션잡지중에서는 명백히 사진을 밑그림으로 하고, 도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었다. 1880년대가 되자, 망판(網版)이 발명되고, 문자와 함께 사진도 인쇄되었지만, 패션정보로서 사진인쇄가 사용되게 된 것은 19세기말이 되어서였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간행된 주요 패션 잡지를 발행년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Lady's Pocket Magazine (1824-40)

<그림11>의 「The Lady's Pocket Magazine」은 1824년부터 1840년까지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제목 그대로 소형(사이즈는 135×90mm)으로 포켓에 들어갈만한 크기였다. 발행간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6페이지에 2장씩의 패션 플레이트가 들



〈그림11〉 The Lady's Pocket Magazine, 1832. ファッション プレートへのいざない, p.41

어있다. 플레이트의 날짜로 추정하면 매월 1회의 배본이었던 같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문자도 작아, 마치 사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잡지이다. 내용은 이제까지의 패션 잡지와 마찬가지로, 소설, 에세이, 시문이 몇 편씩 있다.

패션 플레이트 외에도 여성의 의상에 관해서, 홈 드레스, 젊은 처녀의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라고 하는 식으로 복종별 개설 외에, 파리의 최근 정보도 상세히 서술되어져 있다. 또한, 당시는 교양서로도 읽혀졌던 듯, 「자연주의자의 연구로부터의 발췌」라고하는 흥미깊은 내용도 있다²⁰⁾.

2) La Mode(1829-62), Le Follet(1829-82), La Mode Illustree(1860-1937)

메장제르 이후, 프랑스의 패션지는 루이 필립의 부르주아 지배체재기(1830-48)와 제2공화정기(1848-51)의 두시대로 돌입했다. 이 시대는 잡지의 창간 러쉬가 일어났다. 1830년의 7월혁명 이후, 사회가 정치를 좋아하고, 저널리스틱한 화제에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모드시도 명백히 패션지로서의 유행성, 정치성, 혹은 경제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패션지가 1829년 창간된 「La Mode」지와 「Le Follet」지이다²¹⁾.

<그림12>의 「La Mode」는 신문왕 앙리 드 지라르당(Henri de Girardin)이 창간한다. 도시풍속과 시사잡지로, 부인복과 패션에 관한 기사에 큰 열심은 없었지만, 인기상화가 가바르니(Gavarni)를 등용하



〈그림12〉 「La Mode」, 1849. ファッション プレートへのいざない, p.30

여, 찍는 매수가 많은 수채동판으로 인쇄하여 팔았다. 가바르니는 한 화면에 같은 옷을 입은 모델의 전면, 측면, 뒷면을 동시에 집어넣음으로써 효율을 꾀하는 등, 새로운 패션 플레이트의 기법을 개발하였다. 게다가 모델이 춤추는 듯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점이 신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측면과 뒷면을 다른 플레이트에 그려온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지가 『La Mode』지의 효율적인 일러스트방법을 채용했다고도 말하여진다.

『La Mode』지는 매주 토요일, 도판 1장을 넣어 쓴 값으로 간행되었고, 1862년까지 계속되었다. 원화는 가바르니 다음으로는 란테(Lante)가 담당했다.

이에 대하여 <그림13>의 『Le Follet』는 본격적인 패션지였지만, 도판 자체는 마네킹과 같은 포즈를 취한 모델을 배치한 전통적인 스타일로 시종일관 하였다. 매주 일요일에 복수의 정기간행물의 무료 부록으로서 배포되었다. 그러나 그후 독립하여, 1872년에는 다른 패션지를 병합하여, 1882년에 폐간



<그림13> 『Le Follet』, 1849. 『パリモードの200年』, p.30

할때까지 3,600매의 패션 플레이트를 양산하였다.

<그림14>의 『La Mode Illustree』는 1860년 간행되어, 1937년까지 계속되었다. 『La Mode Illustree』는 19세기 후반에 나온 프랑스의 패션 플레이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행물의 하나로, 약 2만부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큰 발행부수를 갖고 있었다. 『La Mode Illustree』의 패션 플레이트의 대부분은, 실내 혹은 실외를 배경으로 당시의 패션의상을 입은, 마주 보는 두 부인의 포즈가 그려졌다.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은 테이 드레스, 포털 웨어, 방문복, 무도복, 여행복, 해변복 등이었고, 모자, 부채, 파라솔과 같은 액세서리도 그려졌다. 그외에 아동복과 헤어스타일의 플레이트 등이 포함되었다²²⁾.

3) The Queen(1864-현재)

영국의 패션잡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림15>의 『The Queen』이다. 『The Queen』은 1861년 사무엘 비튼에 의해 창간되어, 다음해 윌리엄 에드워드 콕스에게 넘어갔는데, 그는 지면을 일변시켰다. 패션 플레이트는 파리의 『Le Petit Courier des Dames』에서 사용된 것을 모았다. 원화는 고냥(Gonin)과 이사벨 투두즈(Isabelle Toudouze) 등이 담당했다. 그러나 1898년에는 수채의 패션 플레이트는 사라지고, 인쇄만으로 된 잡지가 되어 갔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는 가장 긴 역사를 갖는 패션잡지로서 계속되고 있다.

『The Queen』의 1897년 6월 5일호를 보자. 대형잡지 사이즈는 A3판과 같다. 주간지로, 매호 56페이지



<그림14> 『La Mode Illustree』, 1886.
La Mode Illustree, No.16



<그림15> 『The Queen』, 1897.
ファッション プレートへのいざない, p.41

지인데, 사전식의 활자로 꼭 메워졌다. 도판 페이지도 상당히 있지만 그 정보량은 방대하다. 내용은 왕실의 기사가 많다. 1주간의 행사, 그곳의 출석자의 복장에 관하여 극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해는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하여 60년째이므로, 그 축하의 기사가 눈에 띈다. 테니스와 골프에 관한 보도라든가, 당시 붐이었던 사이클링 등의 스포츠 기사도 많다. 당연히 패션기사도 풍부하고, 다수의 도판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 연극, 음악에 관한 고지란과 당시 성했던 여행안내도 있다. 이처럼 현대 잡지와 별로 다르지않은 내용이 놀랍다.

3. 20세기초의 패션 플레이트의 특징과 주요 패션잡지

20세기에 들어서자 패션 플레이트는 이전보다 다양한 표현방법이 시도되었다. 즉, 이전의 판화기법에 의한 패션 플레이트는 사라지고 인쇄기법에 의한 패션잡지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질이 높은 수채색의 패션 플레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경까지는 살아남았다. 수채색이 갖는 색의 아름다움, 수공예 판화의 표현력은 인쇄술이 따르지 못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컬러인쇄에 의한 패션잡지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포쇼와르 기법이 남아있는 20세기초의 대표적인 패션잡지 두가지를 알아본다.

1)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1912-1914)

20세기초에 등장한 패션잡지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림16>의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이하 『J. D. M.』)인데, 1912년 6월 1일에 간행되어,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 8월 1일 79권으로 중단되어 ‘벨 에포크’ 최후를 장식하였다. 『J. D. M.』은 약 백년전에 간행되어 당시 패션잡지를 리드했던 동명의 잡지 『J. D. M.』의 복간(復刊)을 알리듯, 타이틀, 활자, 지질, 판형, 포쇼와르 기법 등, 인쇄상의 체재를 충실히 답습하였다. 창립자인 톰안토지니(Tom Antogini)는 단순한 패션의 해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예술적 출판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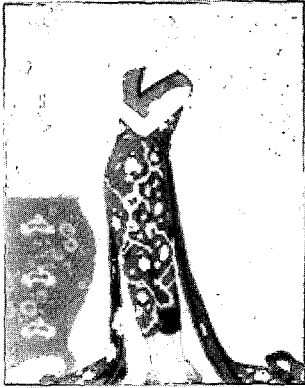
(그림16)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アル・デコのファッション・ブック, p.185

『J. D. M.』은 1회 한정부수 1,279부로 중간까지 186매의 패션 플레이트가 잡지를 장식하였고, 판의 사이즈, 에칭 판화와 채색의 기법이 백년전 메장제르의 『J. D. M.』을 엄격히 따랐다. 발행일은 매월 1일, 10일, 20일의 순간(旬刊)이었다. 이 잡지의 패션 플레이트의 대부분은 옥외의 생활이 테마가 되었고, 56매만이 실내장면이었다.

40명에 이르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로브로부터 모자, 장갑, 구두, 파라솔, 부채, 주얼리까지 모든 생활장면의 변화를 그려내었다²³⁾. 『J. D. M.』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 발행되었으나, 패션은 수준 높은 문화로부터 발신된다는 것을 실증하듯, 궁지높은 패션지를 목표로 하였다. 이것이 당시에 존재하던 유사한 다른 패션지와 비교될 『J. D. M.』의 특징이었다.

2) Gazette du bon ton(1912-1925)

1912년 창간된 또 하나의 패션잡지는 루시앙 보젤(Lucien Vogel)이 편집하고, 폴 푸아레를 비롯한 당시의 디자이너들의 협력과 조언으로 발행된 <그림17>의 『Gazette du bon ton』이다. 이잡지도 19세기에 있던 패션지로부터 제명(題名)을 빌린 출판물



1921년 7월호
『Gazette du bon ton』

〈그림17〉 『Gazette du bon ton』, 1921. 아르·데코의 세계, p.53

이었다. 채색은 포쇼와르 기법을 사용하고, 일부에 다색 석판인쇄도 이용되었다. 『Gazette du bon ton』은 1915년 여름까지는 월간이었지만, 그후는 발행 횟수가 줄어, 1925년 12월 종간을 맞았다. 『Gazette du bon ton』은 이 시기에 역시 루시앙 보젤이 손댄 『Vogue』지에 합병된다.

『Gazette du bon ton』은 창간부터 종간까지 70권, 721매의 패션 플레이트가 발행되어, 각권에는 10매 전후의 패션 플레이트가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Gazette du bon ton』은 완성도가 높은 패션 플레이트가 들어간 최후의 패션잡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Gazette du bon ton』을 펼치면 우선 놀라는 것은 현대의 잡지처럼 대담한 기하학적 디자인과 색채의 선명함이다. 이 잡지의 패션 플레이트는 단순한 패션화라기보다 계절의 즐거움과 운동의 효용등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20세기 패션의 질적 변화를 가장 완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V. 결론

18세기에 등장한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의

패션인형은, 19세기에는 발달된 인쇄술에 의해 패션 플레이트로 바뀌었다.

패션 플레이트는 약 100년 사이에, 지금은 사라진 높은 표현력을 가진 판화기법으로 발전되어,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패션 플레이트를 삽입한 정기간행물을 패션잡지라고 하였는데, 19세기의 유럽은 패션잡지의 전성시대를 맞게 된다.

본고에서는 패션 전달수단의 역사적 변천을 최초의 패션인형로부터, 18~20세기의 주요한 패션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등장한 패션 플레이트와 패션잡지의 탄생과 그 발전과정을 통하여 고찰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1. 최초의 패션 전달수단은 패션인형으로 생각된다. 패션인형은 이미 14세기말에 나타난 기록이 있지만, 18세기에는 인체를 축소한 프랑스의 패션인형이 유럽의 중요한 패션 전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패션인형의 단점을 보완한 패션 전달수단으로 패션 플레이트가 나타났다. 최초의 패션 플레이트는 영국에서는 1643년 『La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cais』에 게재된 호라의 판화, 프랑스에서는 1678년 『Le Mercure Galant』에 게재된 르크레르의 판화로 볼 수 있다.

3. 패션 플레이트는 코스튬 플레이트와는 구별되어, 당시 유행의상의 그림이나, 유행의상을 예측한 그림을 말한다. 패션 플레이트는 코스튬 플레이트가 조금씩 변용하여 패션 플레이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의 패션 플레이트는 당시의 회화작법의 영향에 따라, 동판화, 석판화, 포쇼와르의 기법으로 발전해갔다.

4. 근대 유럽은 패션잡지의 전성시대로, 유럽 각국에서는 수백종의 패션잡지가 간행되었다. 그중, 현대적인 의미의 패션잡지로는 영국의 『The Lady's Magazine』과 프랑스의 『Les Cabinet des Modes』를 들 수 있다.

5. 패션잡지는 창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

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19세기 중기 이후에는 아메리카와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파리의 모방 플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6. 18세기에 발간된 주요 패션잡지로는 『The Lady's Magazine』, 『Les Gallerie des Modes et Costume Francais』, 『Les Cabinet des Modes』,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The Lady's Monthly Museum』을 들 수 있다.

7. 19세기에 발간된 주요 패션잡지로는 『The Lady's Pocket Magazine』, 『La Mode』, 『Le Follet』, 『La Mode Illustree』, 『The Queen』등을 들 수 있다. 이중 『The Queen』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8. 20세기초에 발간된 포쇼와르기법의 주요 패션잡지로는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와 『Gazette du bon ton』이 있는데, 전자는 18세기에 간행되었던, 『J. D. M.』과 같은 체재를 유지하였고, 후자도 19세기의 패션지로부터 제명을 빌린 것이었다.

참고문헌

- 1) Marybelle, S. B. (1929). *FASHION IN HISTORY*. New York: Burgess, p.189.
- 2) 伊藤紀之 (1991). 패션용 플레이트에의 이르지. 東京: フジアート出版, p.35.
- 3) Ibid., pp.23-24.
- 4) 深井晃子 (1998). *世界服飾史*. 東京: 美術出版社, p.65.
- 5) 毎日新聞社編 (1993). *アル・デコの世界*. 東京: 毎日新聞社, p.12.
- 6) Ibid., p.11.
- 7) 伊藤紀之 (1996). *アル・デコのファッション・ブック*. 東京: 岩崎美術社, pp.194-265.
- 8) 毎日新聞社編 (1993). *アルデコの世界*. 東京: 毎日新聞社, pp.11-13.
- 9) Ibid., p.13.
- 10) 伊藤紀之 (1991). Op. cit., pp.25-26.
- 11)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pp.37-38.
- 12) 伊藤紀之 (1991). Op.cit., p.41.
- 13) Stella, B. (1982). *French Fashions*. New York: Dover, p.5.
- 14) アラマタ 宏 (1996). *ファッション畫の歴史*. 東京: 平凡社, p.107.
- 15) 南靜 (1991). *パリモードの200年 I*. 東京: 文化出版局, p.13.
- 16) 伊藤紀之 (1996). Op. cit., p.195.
- 17) アラマタ 宏 (1996). Op. cit., p.82.
- 18) 伊藤紀之 (1996). Op. cit., p.195.
- 19) 伊藤紀之 (1991). Op. cit., p.39.
- 20) Ibid., p.42.
- 21) Florence Leniston (1997). *La Mode Illustree*. New York: Dover, p.5.
- 22) Ibid., p.54.
- 23) 伊藤紀之 (1996). Op. cit., p.197.